강진군,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만든 밥도둑 '즙장' 인기

군동면 신기마을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제조비법
백정자 명인, '김영철의 동네한바퀴'서 홍보 효과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에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장류 제조비법을 전수받아 50년 넘게 전통방식으로 장을 만들고 있는 백정자 명인(대한민국 식품명인 65호)의 즙장이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백정자 명인은 1985년 마을부녀회를 조직해 서울, 부산 등에 메주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강진전통된장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즙장을 비롯한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장류를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KBS1 프로그램인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 강진 전통 즙장이 소개되면서 전화 및 인터넷 주문이 폭주하는 등 여기저기 입소문이 퍼지며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대한민국 전통장류 중 하나인 즙장은 조선시대부터 제조법이 전수되고 있다.

즙장은 우선 각종 부재료, 어린 고추, 무, 늙은 오이(노각)등 야채를 절인 후 짠물을 제거하고 물기를 빼준다. 그다음 찹쌀을 5~6일간 물에 담가 삭힌 후 된밥으로 만들어 엿기름, 메주, 메주가루, 누룩가루를 섞어 하룻밤을 재운 후에 절인 야채와 고춧가루, 조청을 다시 섞어 버무려 준 후 항아리에 넣어 밀봉시키면 된다.

옛날에는 풀, 퇴비 속에 3일 정도 숙성시켜 먹었는데 요즘은 위생상 따뜻한 발효실에서 10일 정도 숙성시켜 만들고 있다.

즙장은 장치고는 짜지 않아 반찬으로 바로 먹기 좋다.

또한 현재 생산되는 즙장은 100% 강진산 콩을 쑤어 만들어낸 메주가루를 사용해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백정자 명인은 "먼 미래 세대도 전통 식품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장류 생산비법을 계승·발전시키고 장류 만들기 체험을 비롯한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전통장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평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즙장, 된장, 고추장 등 전통장류를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가공·유통 및 6차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즙장을 비롯한 전통장류 구입문의는 강진전통된장영농조합법인(061-434-1616)과 초록믿음직거래지원센터(061-433-8844)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현재 즙장은 조기 품절돼 11월 중순 경 재주문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우드랜드 산림전문가 체험프로그램 개발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대체근무로 신규 프로그램 발굴

장흥군은 지난 22일 목재산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체험 활성화 방안을 위해 '2020 대체업무 결과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총 5개팀이 8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동안 개발한 프로그램 및 결과물을 선보였다.

특히 장흥군 소속 산림치유지도사(하경좌)는 의료진,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코로나 19 기여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우드랜드 산림체험 활성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는 유아숲, 숲해설,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 유아숲교육 참여대상'을 30일까지 모집 중이다.

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상가 온택트 쇼핑하세요"

오는 30일 유튜브 통해 라이브 쇼핑 페스티벌 진행

해남군은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라이브쇼핑 유튜브 방송을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의 경기활성화와 해남읍 소상공인 판매 홍보를 위해 라이브쇼핑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해남군 라이브 쇼핑 페스티벌은 지역상가를 직접 찾아가 판매 물품을 홍보하고, 즉석에서 주문도 받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운영된다. 두시간 동안 해남사랑상품권 1호 가맹점을 비롯해 해남읍 매일시장, 음식점, 착한가격업소 등을 찾아 상품을 홍보하고, 주문을 받는다. 명현관 해남군수도 직접 출연해 상가 홍보에 나설 예정으로, 사장님 깜짝 세일과 돌발퀴즈 등이 마련돼 해남특산품 증정행사도 갖는다.

또한 방송중 깜짝 세일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행운을 드리고 문자로 주문도 받는다. 유튜브 방송은 해남군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라이브 쇼핑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됐다"며"다양한 이벤트로 소비자와 함께할 계획인 만큼 언택트 장보기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을밤 완도 야경이 어우러져 더 빛난 선상 결혼식

코로나19로 결혼식 세 번 연기한 27살 동갑내기 부부 선정…결혼식 유튜브로 생중계

틀에 찍어낸 듯 형식이 똑같고 시간에 쫓겨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결혼식에서 벗어나 완도군에서는 이색적인 결혼식을 진행해 화제이다.

바다 위에서 황홀한 야경과 함께하는 로맨틱한 선상 결혼식은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것이다.

지난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완도항에 정박한 슬로시티 청산도호에서는 특별한 선상 결혼식이 진행됐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세 번이나 연기해야 했던 올해 27살 동갑내기 부부이다.

완도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승선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였으며, 모든 출입자는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선상 결혼식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이색적이었다.

대형 LED를 통해 하객들에게 다양한 영상을 선보이며 선상을 환하게 비추었고, 레드카펫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버진로드는 주인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화려한 불꽃을 배경으로 힘차게 등장한 신랑에 이어 2층에서 한발 한발 걸어 내려오는 신부의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하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날 인원 제한으로 참석하지 못한 하객들을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으며 50여 명의 랜선 하객이 함께 했다.

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의 영상 메시지가 무대 화면으로 송출되었는데, 진심어린 축하에 활짝 웃던 신부가 눈시울을 붉혀 하객들도 뭉클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팝 공연과 재즈 음악이 선상과 완도 밤바다에 울려 퍼지며 아름다운 결혼식의 한 장면이 연출됐다.

선상 결혼식을 올린 신랑은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자꾸 연기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마침 군에서 추진하는 이벤트에 선정됐다."면서 "선상 결혼식이라 이색적이기도 하지만 아내의 생일날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더욱 의미 있고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결혼식이 끝나고 그동안 식을 올리지 못했던 다문화 가정 부부에게 무대를 활용해 결혼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동교 청정완도 가을 섬여행 추진위원장은 "처음 시도되는 선상 결혼식은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에 섬과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준비했다."며 "선상 결혼식을 코로나 시대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웨딩 문화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